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보통사람

사도행전 4:13~22 金 元 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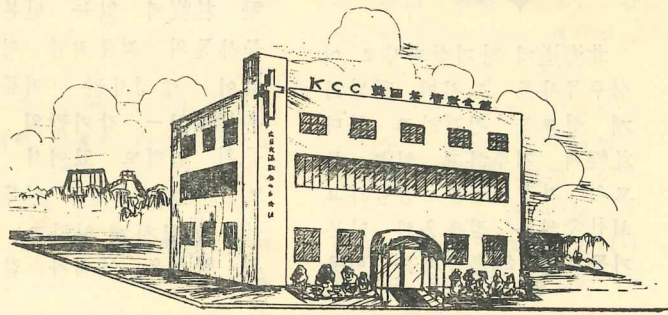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그것은 그들이 배운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운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우리에게 전도하는 네나 그말씀을 듣는 우리나 별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배운것이 없다고 하는것은 문맹인 일자무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은 율법학자나 제사장의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훈련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저렇게 담대하게 가르치느냐고 놀랐다 그들은 공적 입장에서 남을 가르칠 자격을 가진사람도 아니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말은보통사람 서툰 초보 평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면 하나님은이러한 서툰 보통사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평화 스러운 인생을 보내기를소원 하신것이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월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 보통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렵다 다윗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 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하는 시를 붙지라도 알수 있듯이 사람의 인생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인것이다 이러한 고통과 고민을 다윗은 신망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고에 허덕이는 보통 여기저기있는 사람을 택 하실려고 오신것이다 칭찬 사람이 오지 아니할때에 네거리에 가서 거기서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불러 오라 하였으며 병자가 의사를 요구 하듯이 자기도 죄인 을부들리고 오셨다고 하셨다 이러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자가 실지는 축복 받는사람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고 강한자들을 약하게 할려고 약한자들을 택하였다고 하

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네거리에 나가서 어디서든지 붙수있는 보통 사람을 택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며 살기어려운 인생고를 이기는 힘을 주신것이다 제자베드로나 요한은 그들이 해변가에서 고기 잡는사람이였다 그때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나 어떠한 단체의 지도자되기는 불가능 한 보통사람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고 보통사람은 그러 대중이하는대로 따라 가는것이다 그러한 보잘것없는 어부가 지금 뽕박도 무시워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사명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받칠 작오를 하게된것은 보통사람이 변화되어서 강한사람이 된다는것이다 우리들도 이때에 환승더 신앙생활에 힘써서 이보통 사람의 생활을 제대로하자 (西成教会牧師)



재일대한국도교회의 선교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사업으로서 총회원일동이 각자가 자기책임으로 KCC 건설을 승인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은 각자가 담당해야할 경제적인부담에 대한 결심뿐만아니라 그보다도 오히려 교회활동의 혁신적인방향으로 비약하게된 교회관에 대한 큰결단과 결심인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라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의미한 극히시대적인 아조 비약적방향에 대하여 본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해온 우리교회가 큰저항과모험을 느끼게 된것이다 경제적부담이라면 제일차계획총액 1억 2천만원이여서 임시총회까지 소집할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리념에 있고 교회관적방향에 있다 무엇을 해도 좋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나 무엇을 할수 있는나 KCC건설의 의의는 무엇이나 맺을 과실의 여부와 그과실의 가치문제까지생각하여 이와 같은 혁신적리념과 활동을 어떻게 받아드리는나 하는비 있었다 거기에 대하여 금번 KCC건설의 노선이 크게우리를 깨우쳐주는 종소리로 남을 비판하기 보다제자신의 반성으로 이시대에 진지하게 살아나가는 기독교의 교회적 고백으로 알고 결심하고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손발리 따라가려는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신의 자세를 삼아 결단하고 결의한것이다

6월11일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KCC위원장과 선교10개년계획위원장 총간사 또는 총회건축위원장 5명이 경도선교10개년계획위원회사무실에 모여 조직준비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각위원회를 조직하여 KCC건설의 큰사업을 추진해 나가게되었다

조직명단 (순서부동)

1. KCC건설위원
김창업(장) 오윤태(부위원장)
유석준(서) 맥인도(회) 이인하 태비수 김경주 이소용 김덕수 전연복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 청년회중앙 대표위원 이상 12명

2. KCC건설모금실행위원
김덕성 김경찬 김원치 정인수 배기환 윤종은 이상우 이종현 안영준 최경식 백남철 박명준 홍영기 최창화 옥문석 하인덕 김한필 이동화 서재훈 최영모 김재술 민중삼 김판옥 김만준 전규장 최승구 이영숙 이상 27명

3. KCC건설지방모금위원
광동·맹원회 김계호 황재정 이태우 강영일 하인덕 김한필 권태악한필선 윤관병 이영홍 김성하

중부·김안홍 김승준 이정열 김광수 서재훈 김병기 서영균 김재룡 박희삼 이성실 김영현

광서·최종식 김신환 이소영 김경주 김판옥 김만준 조필을 정경자 김중태 전규장 장상재 이성기 임학주 주남식 김수태 김덕수

서남·김형식 한재수 최영모 이중섭 김기현 박남재 이선조 안학도 채유순 이광월

4. KCC건설 교회모금책임자
각교회에서 선출한분으로 책임자를 정함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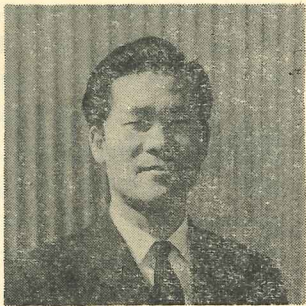
KCC건설결의

제2회임시총회를소집하여가결

KCC건설은 15년전부터의 숙제로서 총회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해온 것이 다 그간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추진해왔으나 선교60주년을 맞이하여 최후적으로 이시대에 가장 적합한 리념으로서 아조 혁신적인지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종래에는 수양관으로서 건설하는 정도였으나 60만동포의 구령이라는 선교적인목적을 제일의로하는 우리 재일 대한 기독교회로서 새로운선교방법과 선교적자세를 KCC로서 나타내어 실현시키자는 의도에서 새 계획을 하게되었다 그것은

우리동포사회속에 들어가서 동포사회의 모든분야에서 봉사하고 일하는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는 선교적자세로서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KCC를 건설하는 것인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과 토지 건물의 후보지를 찾게되어 총회임직위원회와 KCC위원회와 지역유지간담회를 여러번모여 심중히 검토하고 토의한결과 1970년 6월 9일 大阪교회에서 제2회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전체의 총력을 결집할수 있는 태세를 가취 KCC건설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尹宗銀목사 歸日



尹宗銀목사는 작년 7월부터 총회와 日本NCC의 추천으로 미국뉴욕에 있는 유니온신학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6월 초순에 졸업을 하고 일본에 돌아와 지금 堺교회에 사무하게 되었다



선교 10개년 계획 진행

北海道에 장기선교사로 이 성주목사를 모시어 활발하게 선교를 전개하고 있다.札幌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가정가정을 심방하고 최선숙씨와 정초웅씨 일본 기독교단 福島목사를 비롯

한 札幌에 있는 일본교회 목사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있어 총영사관 거류민단 문화센터- 각기관의 간부들의 협력도 있어서 앞으로 札幌교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일하고 있다.의 현상은 아래와 같다

된일인지라 積極後援하기로 하고 北海道教區에서 韓国人宣敎後援會를 設置할것을 計畫하여 推進하고 있다. 1970年度東部年會에서 北海道宣敎를 爲하여 月300\$의 宣敎費를 決定하였고 6月頃、1万\$目標로 北海道宣敎根據地가 될만한 家屋를 購入하기 爲한 募金을 實施하기로 決定하였다. 同年會長尹昌德牧師와 總務尹泳鳳牧師의 積極의 後援의 功勞가 크다고 한다. 北海道에는 札幌市에 崔信淑氏、千歳市에 鄭初雄氏란 有力한 敎人이 있고 宋贊鎬總領事를 비롯하여 領事

館의 積極의 後援과 札幌市에 居住하는 同胞有志의 有力한 後援도 있고 몇몇 婦人들의 宣敎同參決心도 얻어 北海道宣敎에 크나큰展望을 보게 되었다. 宣敎方針에는 李聖柱牧師가 獨特한 計畫을 가지고 그의 많은 才能을 發揮하여 在日同胞의 生活全般指導、子女敎育、思想善導、民族의 生活規準과 倫理觀、社會生活의 指導와 斡旋等、福音宣敎와 함께 多角指導에 앞으로 前進할 것으로 크게 期待하고 있는 同時에、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全體가 힘을 다하여 後援態勢를 세워야 할것이다. 우리는 個人的으로도 李聖柱牧師에 對하여 激勵도 하며 爲하여 祈禱로서 物心兩面에 助力이 있어야 한다. 李聖柱牧師 札幌市平岸2條11丁目 美幸マンション 203号

김장구 김경봉 강득선 윤월순 조장수 정기념 황필순 박진홍 이범진 강대봉 고경진 김길용 강덕원 왕순애 임남춘 강복덕 김명진 강봉선 김옥례 김두성 유영준 강성용 주철중 이은례 박연희 조정숙 윤연이 김금안 고복녀 김기련 방낙실 허천오 조환열 허성금 조옥수 공옥선 이순하 이명춘 엄도윤 현승정 조성주 김인순 강숙자 정순희 정수정 김복분 오을추 최정순 공재경 강영중 윤신웅 이재호 임춘발 김해운 한옥현 신남술 김학수 노영식 김복룡 김달막 배차련 조귀동 정차순 오수련 심점수 이복남 장분선 이복선 김명찬 배기수 김두원 배두남 신분임 이의순 김도식 김연문 김만진 안경재 유종옥 배기선 정귀암 남귀감 최덕승 장춘자 충근선 김양춘 김행자 강주선 김초봉 박해조 최수웅 최경이 김준수 임선에 정옥순 이춘이 김진항 송갑현 김민자 오우상 문봉석 장두원 김영악 노진갑 강명덕 배매희 김옥기 김득보 김치현 원홍식 최정강 남주야 권도금 신성련 황금옥 구소득 김달남 유중숙 김려화 김분순 박선현 정진호 정경아 배정희 조순재 정옥수 김달룡 김수년 이상 387명

北海道開拓伝道開始

基督教大韓監理會東部年會에서 長期宣敎師로 派遣된 李聖柱牧師는 3月25日、家族帶同、札幌市에 赴任하여 北海道居住、9,000名 同胞救靈을 爲하여 宣敎를 開始하였다.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宣敎10年計畫委員會에서 李聖柱牧師를 宣敎師로 맞이한後 李牧師家族을 京都敎會牧師舍宅에 2個月동안

게시게하고 總幹事田永福牧師가 李聖柱牧師와 함께 北海道를 視察하고 各方面에 北海道宣敎에 對한 趣旨를 아뢰고 協力을 求한後 萬般準備態勢를 가취드디어 李聖柱牧師가 赴任하게 된것이다. 日本基督教團에서는 敎團으로서 韓國宣敎師를 맞이하게 된것은 歷史上、처음

선교 10년 계획 모금상황 1970.5.2 현재

總計	約東	入金	殘額
	19,834,290	8,846,955	10,987,335
關東			
東京	986,000	559,000	427,000
西新井	714,000	505,000	209,000
船橋	297,000	150,000	147,000
調布	235,000	105,000	130,000
川崎	840,000	582,000	258,000
横濱	692,000	251,000	441,000
品川	254,000	63,000	191,000
	4,018,000	2,215,000	1,803,000
中部			
豊橋	228,000	0	228,000
岡崎	344,000	0	344,000
岐阜	433,000	169,000	264,000
名古屋	1,420,990	1,038,470	382,500
大垣	203,000	46,000	157,000
	2,628,99000	1,253,470	1,375,520
關西			
京都	1,883,000	890,000	993,000
大阪	1,934,200	958,000	976,200
平野	1,028,000	302,500	725,500
布施	722,000	205,000	517,000
堺	902,600	395,100	736,900
堺東	150,000	80,000	70,000
築港	1,233,000	407,485	826,315
西北	776,300	412,900	363,400
春木	270,000	3,000	267,000
西宮	563,000	295,000	268,000
神戸	371,200	307,700	63,500
武庫川	774,000	248,500	525,500
川西	298,000	100,200	197,800
	10,913,100	4,605,385	6,307,715
西南			
小倉	526,000	120,000	406,000
熊本	477,000	211,000	266,000
福部	513,000	177,000	336,000
宇部	288,000	52,000	236,000
下関	195,000	50,000	145,000
折尾	275,200	163,100	112,100
	2,274,200	773,100	1,501,100

1 頁부터

KCC건설결의

5. KCC건설협찬위원
집은택 강중구 이상룡 신영자 조원국 윤용도 문창숙 유시환 김군화 김창일 박현섭 정경희 김정삼 박근제 이의수 김수동 한윤주 최성광 박준필 박영호 박동보 권부인 손갑노 박태분 오경세 제동린 김경하 김산호 김연이 이해라 유명옥 노진악 김숙도 김명철 장성길 송양립 황보순이 최규남 김광자 김성심 박도춘 김성만 김홍식 김석준 구태경 권후노 조의순 이금용 김순남 이육기 허명구 안순술 한복녀 최창신 이재희 신혜경 이일우 구유희 이광우 정명해 하갑순 김연백 최종대 이종만 김철순 손위수 백재순 김제원 이소재 김재현 김윤득 김기에 김기춘 김윤도 박성근 김성자 박점선 박창애 최정순 이태화 하수봉 김재악 손분악 서금순 하순임 장해룡 정종실 김호련 이부호 박현덕 서우춘 이차덕 이경내 이명장 서요환 우덕순 도연이 장미봉 김분악 김옥금 서봉금 김영애 권남순 김소전 김남석 이성원 정애라 김보배 문정원 전무용 김중길 전진호 김영세 조임주 김정강 신순준 이숙희 정순덕 이무순 조용현순학 박정식 이봉숙 안광자 현정학 배상순 김은

전 임금선 유태식 최덕암 문기술 서성조 최재영 김정휘 이종홍 조인순 이창화 김양림 서명인 강금이 이용출 이분이 권순남 김동연 예술분 배두연 맹순태 김삼순 설난주 김근춘 송덕순 전말순 정쌍순 정성년 정분순 장경철 강화익 차삼담 장남중 김용추 양석철 황금만 오재현 김영철 김용성 강창구 김주일 강완 권의순 강제생 현인선 오선비 김순환 이기태 조순일 송갑생 문신실 이유아 강갑생 김재익 이육석 김성진 정성모 김만영 이정남 임귀임 정인분 오순분 황금도 김달임 이애선 현태희 최정숙 김윤웅 나난임 신봉기 손소들 오경팔 김진옥 김중성 이약선 이기항 김성기 장우기 최정식 강중원 문영순 강조간 박명남 김차남 황덕례 문희남 고수선 김정일 조정선 전왕옥 제정녀 문옥화 고병생 홍철이 이차련 임봉선 김군필 김갑선 우영수 김향모 김진옥 김재선 강재례 백소락 허말련 현춘심 김분열 배울래 변만주 홍방현 백순덕 손갑순 주희선 김순자 최정임 정야실 갑재례 김순이 박옥난 이윤단 박영호 홍양삼 조용애 오선례 조성윤 김정철 공영순 김선 양진목 최연주 이윤근

6. KCC건설교섭위원
김창업 유석준 맥인도 3명
선교10개년계획위원회
총간사 전 영복

印刷는

僑文社

716-5046





聖 書

1. 使徒達が聖霊に導かれて神の言を伝えるのを聞いていた人たちが、彼らは無学の凡人ではないか、彼らがどうしてあのようにすばらしい教えを説くのかと驚いた（行2:11～12）。ここにいう凡人というのは私的な人間という意味である。彼らはラビ養成の学校で特別な訓練を受けていなければ祭司、長老律法学者といったような資格をもった公的な人間でもない（行4:1～8）。そのような彼らがあのような教えを伝えるとは一体何が彼らをしてあのようによき教えを伝えるのかといふかったのである。凡人は初心者（第1コリ14:16）一般会員（第1コリ14:23～24）素人医者、素人詩人、何の特徴のないありふれた人間ということである。神の言はこのような名もない凡人に伝えられ（マタイ28:19）又その凡人が神の真理を説きあかす役目である使命を与えられている（ヨハネ1:46）。

2. この普通の人間になるのが実に苦しい。ダビデは「例い私が死の陰の谷を歩むとも災を恐れませぬ」と歌ったがこれは人生とは死地を歩くようなものであるとの人生経験からいっ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に苦しい悩みの多い人生を彼は神の保護を信じていたからその苦難にみちた人生を生き抜くことが出来たのである（詩23）。主イエスも病人に医者が必要であり、私が来たのも、義人を招くためではなく罪人を招くためであると言われた（マタイ9:12）。このことによっても悩みに打ちひしがれている人間を立ち直るようと思われた神の子の恵みを知ることが出来る（ルカ8:3）。

3. パウロは「知者を恥かしのめるために愚かな者を選び、強い者を恥かしのめるために弱い者を選び、有力なものを無力なものにするために身分の低い者を選んだ」といっている（第1コリ1:27～28）。このことは神様がいじわるく彼ら地位や名誉のあるものを救わないというのではなく、凡ての人を平等に取り扱うためである（第1コリ1:29）。私たちが今生きようというのはつばねけた特殊な人間になろうというのではなく、ありふれたそ

普 通 の 人 間

使徒行伝 4:13 ～ 22 金元治牧師

らの人間として生きるのであるがそんなにも苦しいのである。食べて生きる動物的でないかと言われるかも知れないが、この食べる着る生きるこのことが実に人間をして普通に生活することを困難ならし

めている。この単純なガラリヤの漁師たちが普通の人間として強く生きたのはキリストにより救われ励まされたからである（ルカ21:15）。

（西成教会）

宣教一期を顧みて（二）

アンダーソン宣教師

私が、カナダに帰ったら、このはなしをするつもりです。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カナダの教会が弱くなっていると考えている人に何らかの勇気を与えるでしょう。私はヤコブがベテルで言ったように、「神はこの場に、居たまい、私はそれを知らなかった」という証だと思え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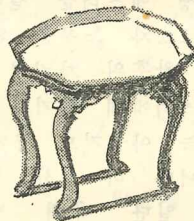
この期間に、私たちが関心を持った他の分野がありました。

その第一は、言葉です。日本語の複雑さ、それに韓国語のまだ克服されていない神秘さ、外国で勉強なされた方々が多分言われていることに関心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言葉が理解出来ないという欲求不満をよくわかると思います。ある人は多分検閲係としてあなたが知ってはならないと思うことを省く通訳を持った経験がおありでしょう。同僚の牧師は特に黙っているように強いられる難かしさを高く買うでしょう。これは勉強し練習すれば、そのうちに解決される問題です。それは韓国語知識が弱く、不完全である他の人たちと分かちあえる問題です。

第二は、私の思考方式にとって最も批判的な関心の分野であります。すなわち、教会の指導者たちと教会の内外の青年たちの間に大きな「ギャップ」があることです。これは、私の信ずるところでは、今すぐ注意を払わねばならない必要性を持っているものと言えます。幼年であれ青少年であれ、若い人の霊的な要求が大変無視され、せいぜい誤解されているだけです。この国において、半分以上の人は25才以下であり、私たちの教

会員をみてみますと、30才以上、特に40才以上の年をとった人たちが3分の2を占めていることは重大なことです。

第三に、教会における宣教師の役割についてです。1968年 1月20日、京都で開かれた会議において教会全般と牧師、宣教師の間に、この点に



韓 国 旅 日 記

— 4 —

吉 田 源 治 郎

私は日本からも留本学生があるという韓国神学大学を訪ねた。敷地は何と15,000坪。目下鋭意建設中の模様であった。ここには日本からも留學生が一名、この5月から二年間在学するという。そこへ他の神学校に留学している日本の友人が尋ねて来たとかで、しばらく二人で楽しい歓談をした。聞けば、この二人は夏休み中に韓国の地方各地へ旅行したとのことで、地方の教会の状況などを語ってくれた。一人は帰国すれば大阪の韓国教会で働くのだという。神学大学の学長はかつて東京に留学されたことがあり、日本からも留學生を送ってほしいと要望されていた。ライブラリーも立派で内外の書籍が何千冊か集められ整理中であった。

私達は梨花女子大学の善美をつくした幼稚園を見学した。その日は折り悪しく子供たちが園外保育にいらっているため不在であったが、自然保育も音楽教室もとても整ったものであった。しかし私たちは、同じソウルにある音楽家の柳慶孫夫人の城南幼稚園（

関して混乱があることがはっきりいたしました。もし宣教師たちが有効な仕事をする事になっているならば、彼らは自分たちに期待されていることが何であるか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でなければ、彼らの仕事がよくなされているかあるいは、悪くなされているかどうか、区別する方法がありません。

皆様、これらのことを皆様に関心して頂くことは、私があさがしや裁判長になるためにはありません。私は正直になって、今ある問題に対して、責任を分かちあい、それらがよくなって行くよう共に働きたいと望んでいる一人として居るのです。

私たちはもう一度ここで勉強するためにもどるつもりで、学習休暇に出かけます。私たちが何をするかということとは、全く皆様、つまり、「任職委員会」にかかっております。私たちが最善を尽くすことの出来ることを考えて下さい。

私たちのいない間、祈って下さり、また私たちも皆様がたのために祈るつもりです。

（以 上）

同市中区東子洞17)を忘れないであろう。ここは23人に充たないささやかな幼稚園であるが、午後は附近の貧しい子供たち（約30人）のために特別な保育を無料でしているとのこと。またソウルYMCAでは45人ばかりの子供のために二階で幼稚園を開いているが、子供たちを待つ間を利用して母親達は地下室のプールで遊泳を指導されていた。

私はなぜ済州島まで出かけたか？そこに戦前、アメリカで成功した中原幸太郎氏が、1,400町歩の農園をカンラ山（漢拏川）の中腹のペンテチンバにもっていたが、それを賀川先生に譲渡したので、先生はここを豊幸（トヨサチ）農場と名づけ数年間、立体農業の実験地として植林を試みていた。私はその遺跡がどうなっているかを見たいと思ったからだ。しかし、今日では状況は一変。かつて同地の教会に寄贈された農園は、数年間北鮮からの共産軍の占領地となっていたが、その後、政府に接收されたという。私は、約一年半ほどこの農園を直接経営されていた西帰浦中

央長老教会の趙牧師に面会、くわしい事情を聞くことができた。

今日では済州島は、観光地に脱皮し、また昔からのみかん、パイナップル（韓国本土のメソヂスト教会経営）の生産地として知られている。

昔は一つの国として独特の風俗をもち特異の文化をもっていたチェジュ（済州）には研究すべきものが多い。済州市で見かけた「済州島民俗研究会」という文字が私には忘れられない。済州市から西帰浦（ソギッポ）まで直線の5・16道路（1961年 5 月16日開通）を私は大型バスで走り、約1時間であつた。戦前には、済州市から西帰浦まで西廻りでいって9時間もかかったということだ。済州市では、YMCAと二つの教会の連合で二回集会し、賀川豊彦伝（幻燈映写）を私は語った。

この島には、かつて戦時中30人位の牧師が本土から避難して来たことがあり、教会がいくつかつくられた。イエス長老会とキリスト長老会が隣り合せてできたのもその頃のこと。私は両教会の牧師と腕を組んで写真をとった。ここでイエスとキリストが始めて一つとなった次第。

韓国では、婦人は結婚しても改姓しないらしい。「何故結婚すると主人の姓にかえなくてはならないの」と最近では疑問を放つ若い女姓が日本にも現われている。例をあげれば金雲松さんは大邱の某教会の牧師夫人だ。今は生花の店を出して居られるが、主人とは違った姓である。私は在日のある韓国夫人にその理由を聞いてみたが、ハッキリした答は与えられなかった。

韓国婦人はとても姿勢がいい。これは頭に物を載せて歩く風習から来ているらしい。韓国ではソウルなどでは、余り見られないが一地方へいけば、ちいさい子供の時から自分の背丈位の荷物を頭に載せて歩いている婦人も目につく。幼稚園の遊戯に豆袋を頭にして歩行する「のせて、のせて、豆袋のせて」というのがあるが、韓国ではそうした遊戯の必要はないようだ。

韓国では、しばしば凶作があり、水キキンがあるらしい。ツーリストホテルでは、その心配はないが、地方のYMCAなどでは手洗いに水の設備がないことがある。日本からの観光客は戸惑うようである。